

신을 돌렸어.

“구해라, 그녀를 구하시오! 그녀를 버리지 마시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외침이 더욱 고조되는 것이 들려왔네. 하지만 그 순간, 산더미처럼 높은 물기둥이 몸서리치리만큼 거대한 규모로 호박섬과 연안 사이에 들이쳤고, 곧장 생제당 호를 향해 포효하며 달려들더니, 시커먼 옆구리를 드러내고 머리로는 거품을 내뿜으며 배를 위협했어. 이 살벌한 광경에 그 신원은 홀로 바다에 몸을 던졌지. 그러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둔 비르지니는 한 손을 자기 옷에, 다른 한 손을 자기 심장에 얹고, 담담한 시신을 높이 들어올렸으니, 그녀는 하늘로 날아가는 천사와 같았다네.

아, 얼마나 참담한 날이었는가! 비통하도다! 모든 것이 삼켜졌어. 파도는, 인정에 몸이 움직여 앞다퉈 비르지니에게 가려던 구경꾼 일부와, 수영을 해서라도 그녀를 구하고자 했던 신원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 안쪽으로 던져 버렸다네. 거의 확실했던 죽음을 면한 이 사내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지만, 저는 결단코 저처럼 옷을 벗기를 원치 않았던 그 존귀한 여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을 것입니다.”

도맹그와 나는 의식을 잃고 입과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가여운 폴을 파도에서 끌어냈네. 총독은 그를 외과의